



3면

“새만금 기본계획, 상시 해수유통으로 변경을”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음 1월 30일) 제36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부안군청에서 도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 미래 부안”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부안

‘도민과 만나 전진하는 전북 만들겠습니다’ 주제로
한계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 공유

부안군은 26일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부안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먼저 부안군 업무보고에 참석해 군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부안군 주요정책과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군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강당에서 부안군민과의 대화로 도정 운영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앞으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생생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한데 힘을 모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부안군민들이 △하서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부안형 지역 정착 청년일자리 지원 △부안 우리밀 클러스터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서해안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

획 반영 등 부안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부안군민과의 대화에서는 2월 말 발표를 앞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 사회단체장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민생 청취를 위해 부안군에 방문해주신 김관영 도지사께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부안군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격포항 권역에 해양레저관광 중심 어촌경제거점 조성

도, 해수부 ‘2025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00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부안군 격포항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군 격포항권역 사업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어촌자원을 민간투자사업인 공항마리나항민개발사업과 연계해, 서해안의 대표적 해양레저관광중심의 어촌 경

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4계절 해양레저체험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해양레저활력센터를 조성하고, 어민·귀어·청년 창업인에게 교육, 임시 숙소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을 위한 어촌활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항마리나와 변산반도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안접근로 등을 조성한다.

한편, 공모사업을 위해 해당 어촌계에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개방으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고, 도 및 부안군에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사업구상과 함께 국회 이원택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만호 기자

“AI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올해 10대 추진전략 발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이 올 한해 AI기반의 미래 신산업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화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지역 기업의 신성장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6일 진흥원 신년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미래도시 전주 실현’이라는 목표와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진흥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도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 신산업육성을 위한 10대 추진전략은 ‘도전·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규모 확대 △메타버스 기반 가상융합 산업 육성 △디지털 기술 기반 영화·영상산업 R&D 및 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고도화 및 특화산업 육성 △지역 산업의 DX(디지털 전환) 및 AX(AI 전환) 전방위 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협의회 등이 있다.

이중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로봇, 의료 등 AI 기술이 모든 산업 영역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진흥원은 ‘20년부터 5년 간 205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AI산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14억9100만원을 들여 AI 등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계속한다. 교육 목표는 15개 과정 260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선 진흥원은 첫 번째 추진전략인 ‘도전·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소규모·지역적으로 진행되던 지역 산업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그간 전주시와 발맞춰 꾸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국책사업 발굴 통한
지역산업 규모 확대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가상융합 산업 육성
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미래도시 전주’ 실현 목표

준히 국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왔으며,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도전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또 전주역 인근 전북메타버지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통과된 정부의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문을 연 VR/AR제작거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

업 공모에 각각 선정돼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은 지난해 전북교육발전특구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사업’으로 진흥원 내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올해부터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VP(Virtual production) 관련 고교 인재 양성 및 지역과 선도기업간의 R&D 협업을 지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달 에픽게임즈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영화영상 실습역량 강화를 위한 도제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디지털 영화기술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전주만의 영화영상분야 특화사업인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인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www.k-soundlibrary.kr)’에 유통시스템과 AI기반 영상을 맵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기 구축된 3만3400여 효과음원 DB 외에 추가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플랫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시에 진흥원은 지역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거점공간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X(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또, 전북지역 유일의 1인 창업지원센터인 전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전북SW품질역량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SW품질 향상을 위한 KOLAS 시험인증 등 지역 SW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주시 산업의 진흥기관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흥원은 전주·전북지역의 IT·CT 산업을 이끌어 왔던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올해는 전주시의 미래산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화영상산업을 특화시켜 향후 20년간 전주시의 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욱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